



본 내용은 아래 기사 및 칼럼 내용을 요약 번역한 내용임

Trouble Paying Your Bills? Meet the Culprit

EJ Antoni

9 Aug 2024

당신의 생활비 부족, 숨은 범인은 누구?

지금 당신만 고지서를 제때 납부하지 못 하고, 저축은 생각도 못하는 것이 아니다.

2024 년 6 월 기준 평균 저축률은 3.4%로, 팬데믹 이전의 절반 수준이다. 장기 평균인 8.5%에 비해서도 크게 낮아졌다. 2022 년을 제외하면, 2008 년 금융위기와 대공황 이후 가장 낮은 수치다.

하지만 이건 개인의 잘못이 아니다. 가게 예산을 압박하는 비대한 연방 예산 때문이며, 근본적인 원인은 워싱턴 D.C.다. 양당 모두 과도한 지출에 책임이 있지만, 가장 큰 책임은 바이든 행정부에게 있다. 이들은 연방 부채를 7 조 4 천억 달러나 늘리고, 재무부의 예산을 1 조 달러 이상 소진하는 무책임한 지출을 주도했다.

연방준비제도의 돈으로 대부분의 막대한 지출을 충당하였다. 덕분에 재무부는 더 많은 달러를 지출할 수 있었지만, 그 결과 달러의 가치는 떨어졌다. 마치 위스키에 물을 섞어 양은 늘렸지만, 도수는 낮춘 셈이다. 정부의 대규모 지출과 차입, 화폐 발행은 4 년이 채 되지 않아 달러 가치를 5 분의 1 로 떨어뜨렸고, 동시에 금리를 끌어올렸다. 중간 가격대의 주택에 대한 월별 대출 상환금은 바이든과 해리스 취임 이후 두 배로 증가했다.

바이든의 인플레이션 정책이 비판받는 것처럼, 해리스 역시 현재 생활비 위기에 큰 책임이 있다. 부통령으로서 해리스는 상원 의장 역할을 맡고 있으며, 동률 투표 시 결정권을 행사했다. 그녀는 미국 역사상 가장 많은 동률 투표를 결정한 인물이다. 해리스는 의회 갈등을 강하게 밀어붙이며 이번 행정부의 입법 과제를 관철했고,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이 있다.

바이든 행정부의 주요 지출 법안 중 '인플레이션 감축법'과 '미국 구조 계획법'은 상원에서 교착 상태에 있었으나, 해리스의 결정으로 통과됐다. 두 법안은 바이든 행정부에서 가장 큰 규모의 지출 법안 중 일부로, 연방 부채를 크게 늘리는 데 일조했다. 게다가 해리스는 바이든이 서명한 주요 지출 법안들에 모두 찬성했으며, 따라서 물가는 40 년 만에 가장 빠른 속도로 올라갔다. 2025 년 1 월까지 바이든-해리스 행정부는 연방 부채를 사상 최대 규모로 늘리고, 재무부의 현금을 최저 수준으로 줄일 전망이다.

이러한 재정 실패는 연방 재정뿐만 아니라 가계 경제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쳤다. 현재 미국 가계는 1 조 1 천억 달러의 신용카드 부채에 허덕이고 있으며, 연간 이자 비용만 2,400 억 달러를 넘어섰다.

대다수 미국인은 냉장고 고장, 자동차 수리, 응급실 치료비 같은 예상치 못한 지출을 감당할 비상 자금조차 없다. 젊은 성인들이 독립적인 생활을 할 여유가 없어 부모와 함께 사는 비율이 1940 년 대공황 이후 가장 높은 수준에 이르렀다.

생활비 위기는 바이든과 해리스의 실패한 공공정책의 결과다. 워싱턴의 과도한 지출로 인해 주유소에서 기름을 넣고 식료품을 사는 것조차 버거운 게 현실이다. 미국인 누구도 피할 수 없는 현실이며, 바이든과 해리스 역시 이에 대한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다.

번역: 전예지

출처: <https://www.heritage.org/budget-and-spending/commentary/trouble-paying-your-bills-meet-the-culprit>